

## 특허는 벌써 풀렸는데... 복제약 만들기 쉽지 않네

### 뉴스카페

“오리지널 특허가 풀렸는데 복제약은 왜 두 개만 나왔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넥시움’ 특허가 끝났음에도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지지부진하다. 연매출 500억원 규모인 넥시움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제품이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풀리는 즉시 20~30여개 복제약이 쏟아지는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넥시움 복제약을 내놓은 곳은 현재 종근당과 대원제약 두 곳뿐이다. 지난 7월 특허가 끝난 뒤 8월부터 대원제약이 가장 먼저 제네릭을 출시했다. 9월에는 종근당이 제네릭을 선보였다.

‘퍼스트 제네릭’으로 시장에 나온 대원제약의 ‘에스원엘프’는 지난달 7억3000만원에 이어 이달에도 10억원의 처방액을 내다볼 정도로 빠르게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종근당도 첫달 1억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시장에 진입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넥시움 복제약 출시가 더딘 것은 기술장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넥시움 알약 안에 또 다른 코팅이 있는 미세한 알갱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탓에 제네릭 만들기 쉽지는 않는데 물질특허는 끝났지만 아직 조성물 특허가 남아 있어 이를 피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물 특허를 피하기 위해 대원제약과 종근당은 일반 알약 형태의 코팅기술을 적용했다.

복제약 개발에 도전한 다른 업체들은 오리지널과 같은 약효를 증명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 관계자는 “최근 특허가 풀린 오리지널 가운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 가장 어려운 제품 중 하나가 넥시움”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제약사는 제네릭을 직접 생산하기보다 종근당과 대원제약에 위탁생산하는 방법으로 우회로를 찾고 있다. 다음달 넥시움 복제약을 내놓을 예정인 광동제약 삼진제약 등이 위탁생산을 맡길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보니아코퍼레이션 블루투스 헤드셋

## 귀뻐를 통해 소리 전달 ... 프랑스 군인도 쓴다

보니아코퍼레이션은 블루투스 헤드셋을 만드는 회사다. 서울 강남 청담동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석근 대표는 헤드셋을 써보라고 권했다. 귀에 덮어쓰지 않고, 귀 앞부분에 걸치기만 하는 헤드셋이었다.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외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 대표는 소개했다.

◆사고막을 수 있는 제품 이 대표는 “이러한 헤드셋을 귀에 꽂고 걸거나 자전거를 타다 일어나는 사고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보니아의 헤드셋 ‘EZ-7000’은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귀 앞부분 뼈에 걸치기 때문에 주변 소리는 귀로 듣고, 헤드셋에서 나오는 소리는 뼈로 듣는다는 얘기였다.

이 대표는 “소리는 공기만이 아니라 고체(뼈)를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원리를 응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종이컵 두 개를 실로 연결하면 소리가 전달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는 “최근 미국 한 주에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운동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골전도 방식의 이어폰과 헤드셋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5년간 기술 개발에 매진 이 대표는 골전도 방식 기술을 개발한 이유에 대해 “1990년대 후반

골전도 방식 적용

주변 소리 들려 사고 예방

특수통신장비로 응용

포스코 등 대기업에 납품

부터 중국 베트남 등의 저가제품 때문에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며 “특수한 시장을 공략하려고 만든 제품이 골전도 방식의 통신기기”라고 설명했다.

보니아에는 현재 국내 대형 음향 기기 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연구개발자 네 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이 15년간 골전도 방식



이석근 보니아코퍼레이션 대표가 서울 청담동 사무실에서 골전도 기술을 적용한 헤드셋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제품을 개발하는 작업에 매달렸다. 이 대표는 “보니아의 핵심 경쟁력은 고체를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칩 제조능력과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음향전달 기술(소프트웨어)”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특수부대에도 납품 보니아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2011년 개봉된 프랑스 영화 스페셜포스에는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나온다. 특수부대원들이 보니아가 만든 헤드셋 장비를 끼고 통신하는 장면이다.

보니아는 프랑스 특수부대에 골전도 방식을 이용한 헤드셋을 납품했다. 프랑스 방산회사가 보

니아를 찾아와 거래가 성사됐다. 이 기술을 응용한 특수통신장비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내부 통신뿐 아니라 주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필요했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납품한 헤드셋은 5만 개 정도다. 한국 미국 스위스 군에도 장비를 팔았다.

이 기술을 응용한 특수통신장비를 만들어 포스코 등 소음이 큰 사업장을 갖고 있는 회사에도 납품했다. 이 대표는 “골전도 기술을 통한 음향 전달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응용 분야가 넓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준기자 junyk@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0월의 으뜸중기제품=스제니컴의 산업용 자외선 (042)862-3982 스매직에듀의 학습용 놀이매트 엘리매트 (02)2038-0080 스보맥코스메틱의 네크라 시드버터 멀티케어 밤 (070)4814-8146 스보니아코퍼레이션의 블루투스 헤드셋 (02)547-7894

www.safekorea.com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 2014 대한민국 사회안전 박람회

Korea Social Safety Expo 2014



2014.11.12(수) ~ 11.15(토)  
| 일산 킨텍스 Hall 4

“대한민국사회안전박람회”는 우리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재난안전, 해양안전, 범죄예방(정보기반보호, 여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교통안전(자동차·항공·철도), 산업안전, 식품안전 등 안전에 대한 분야를 총 망라한 안전산업의 종합전시회입니다.



### 참가신청 안내

부스비용	A. 독립부스 180만원 B. 조립부스 210만원 ※VAT별도
할인혜택	·기초참가업체 20만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60만원 ·기타 중소기업 20만원 ※최대 80만원 할인
전시품목	재난안전, 해양안전, 범죄예방(정보기반보호, 여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교통안전(자동차·항공·철도), 산업안전, 식품안전 등
부대행사	·세미나 재난관리, 범죄예방, 교통·항공안전, 식품안전, 산업안전 분야 ·교육 재난안전교육, 성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식품안전교육 등 ·홍보관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정책홍보관 운영 ·체험관 소방안전체험관, 재난안전체험관, 교통안전체험관, 승강기안전체험관 등
문의·신청	대한민국사회안전박람회 사무국   TEL 02-360-4517, 4507 / FAX 02-360-4503 / E-mail saferkorea@naver.com

주최 | 안전장비연구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경제신문 후원 | 교육부, (주)인문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서울특별시

### 현장리포트 실무형 인재 키우는 산학협동 교육

## 용접·CAD 배우는 목포대 베이스캠프

(컴퓨터지원설계)

전남 무안 목포대(총장 최일)에 있는 ‘베이스캠프’에서 보호 마스크를 쓰고 파란 불꽃을 튀기며 용접하는 사람들은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다. 베이스캠프는 현장실무를 미리 익힐 수 있는 배움터다. 이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대생들은 대학에서 이론을 주로 배우고, 기업에 들어간 뒤에야 생산 현장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목포대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베이스캠프에서 이산화탄소 용접 등 기초용접은 물론 가스 텀스텐 아크용접 등 특수용접도 배운다. 인근 대불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이곳에 와 용접과 컴퓨터지원설계(CAD) 등을 배우고 있다. 3차원(3D)프린팅 교육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상찬 목포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산학협력교육인 현장 실습을 위해 학생을 중소기업에 보내면 시설 부족 탓에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산학협동재단(이사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012년부터 몇몇 대학을 선정해 ‘산학협동교육 활성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대 기계공학과는 첫째 산학협력 활성화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3년 연속 이 사업을



목포대 베이스캠프에서 대학생들이 용접실습을 하고 있다. 김낙훈 기자

산학협력 활성화 선정 취업준비생·근로자도 몰려 연간 500여명에 실무 교육

수행하고 있다. 교내 첨단기술교육센터장과 대불산업단지 내 신우산업에 산학협력을 위한 훈련장인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대학생과 중소기업 제직자 등을 교육했다.

이 과정에 직원 20여명을 보낸 대불산업단지 조선기자재업체 에스앤에이 이석호 사장은 “직원들이 용접실습을 한 뒤 제품 생산능력이 크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인근 대상중공업(사장 문제균)의 이병욱 경영관리팀장도 “외주회사 직

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이 취업에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이 나자 목포대 상경계 학생은 물론 이 지역 취업준비생들도 입소하기 시작했다. 이상찬 교수는 “연간 500여명의 학생과 취업준비생, 기업체 근로자를 교육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무척 반긴다”고 말했다.

산학협동재단은 목포대 이외에 안동대(기계설계학과 응용신소재공학과), 서울과학기술대(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등 모두 3개 대학 4개 학과에 이 과정을 개설해 올해 총 5억8000만원(매칭펀드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목포=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韓日관계 개선, 기업이 주도”

일본중소단체전국대회 참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중소기업단체전국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연설했다. 김 회장은 “소원해진 한·일 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경분리 원

칙에 입각한 경제주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중소기업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협동조합과 개별 중소기업 분야에서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널리 확산시키자”고 제안했다.

김용준기자 junyk@hankyung.com

